

다렌 우호 기념관

다렌 우호 기념관은 기타큐슈시와 중국 다렌시의 우호 도시 체결 15주년을 기념하여 1994년에 건립되었습니다. 우호 도시 체결은 복잡했던 두 시의 관계에 좋은 전기가 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다렌시에 100년 이상 전에 건설된 철도 기선 회사의 사무소를 모델로 하고 있으며, 주위에 늘어선 20세기 건축물 중에서도 특히 눈길을 끄니다.

복잡한 역사

모지는 20세기 초 일본과 다렌을 연결하는 중요한 항구였습니다. 청일 전쟁(1894~1895)을 종결시킨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 조인 후, 일본은 일시적으로 다렌을 통치하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의 중국 진출을 경계한 러시아가 다렌 항구의 영유권을 주장했습니다.

다렌은 러일 전쟁(1904~1905) 때까지 러시아에 있어 아시아의 주요 무역 거점이었습니다. 이후 일본이 다렌 항구를 지배하자 다렌은 일본의 외국 파견 기관에 있어 주요한 항구가 되었으며, 다렌과 모지는 국제 항로로 연결되어 교류가 활발해졌습니다. 이 관계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1939~1945)에서 패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후 다렌은 소련이 지배했으며, 1950년 중국에 반환되었습니다.

복잡한 두 시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기념관에도 복잡하고 다국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건물은 다렌 주변에서 운행되었던 만주횡단철도(동청 철도)의 관리사무소를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소는 1902년 러시아가 고용한 독일인 건축가에 의해 설계되었습니다. 일본이 다렌을 지배한 후 사무소는 다렌 클럽이 되었습니다. 1926년에는 '니혼바시 도서관'으로 개축되었습니다.

진짜와 똑같이 재현

다렌 우호 기념관 건설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을 당시 모델로 삼을 건물로 다렌 시내에서 일본과 인연이 있는 6개 건물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독특한 디자인, 희소성, 역사적 가치, 그리고 전체적인 아름다움의 측면에서 구 동청 철도 사무소(구 니혼바시 도서관)가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원본 설계도와 상세한 기록이 없어 건설이 좀처럼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설팀은 다렌으로 건너가 건물의 치수를 측정하여 기록했습니다. 다렌에서 수입된 벽돌은 45,000 여 개, 화강암은 5,000 여 개에 이르며, 기초 공사를 비롯해 현관의 바닥과 복잡한 상감 세공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아마도 돌에 새겨진 공구의 흔적조차 세심하게 재현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두 도시와 국가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이 건물의 건축 양식은 다국적 뿌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높은 첨탑 지붕과 목조 벽에는 뚜렷하게 러시아와 독일의 감성이 묻어납니다. 또한, 곡선형의 기와를 일본과는 다른 방식으로 쌓아 올린 중국식 지붕도 볼 수 있습니다. 지붕 기와는 처음에는 다렌에서 수입되었으나 모지의 기후에 맞지 않아 시마네현에서 만든 기와로 대체되었습니다.

1995년부터 2018년까지 이 건물은 다렌 우호 기념 도서관으로 사용되었으며, 중국과 동아시아의 자료를 전문으로 취급했습니다. 현재, 1 층에는 다렌시에 있는 레스토랑이 직접 운영하는 중국요리 레스토랑 ‘다렌 아카시아’가 있으며, 2 층에는 테이블과 편안한 팔걸이의자가 놓인 휴식 공간이 있습니다. 또한, 다렌에 관한 미술품과 자료가 전시되어 있으며, 북경어와 일본어로 된 소개 비디오도 있습니다. 3 층은 현지 마을 만들기 단체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